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의 연구 현황과 과제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1. 서론

남과 북은 분단 이후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언어문화를 지속하면서 용어의 이질성이 심화되어 왔다. ‘겨레말큰사전’과 같은 대규모 작업이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실질적인 남북 교류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민족의 언어 유산을 집대성하는 노력과 함께 각 전문 분야에서 남북 간 용어 차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최근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의 바람이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를 높여 가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건설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건설 분야는 학술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전문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건설 개발 사업 과정에 많은 조직과 인력이 참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남북 협력 사업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상당한 규모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북 기술 인력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사업의 성공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남과 북이 서로 참조할 수 있는 공통의 건설 분야 관련 용어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 관계 회복과 북한 지역 개발 참여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건설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에 있어 다른 모든 노력에 선행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도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에서 전문용어가 갖는 중요성을 검토하고, 남북 건설 용어와 관련한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남북 건설 용어를 정리한 대표적인 연구 사례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앞으로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도록 한다.

2.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2.1.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남북 간 언어 통합은 분단 이후 남북의 사회 체제 차이가 가져온 언어적 이질감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민현식(2014), 이찬규 외(2014), 이대성(2015)] 남북 정부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어에서 35% 차이가 나고, 전문어에서 64% 정도 차이가 나는 등 특히 전문용어에서 이러한 이질화가 심각하다.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류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차이도 깊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용어의 경우 《겨레말큰사전》에도 많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¹⁾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자기 분야 용어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전문 분야마다 남북 간에 쓰이는 용어의 양상을 종합적으로

1) 최기선 외(2005)는 특정 집단에서 통용되는 것으로 새로 형성된 어휘가 많고, 단어어 명사로 일반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점을 전문용어의 특징으로 정의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남북 간에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2.2. 건설 분야의 연구 수요

2.2.1. 북한 건설 인프라와 남북 협력 사업

과거 노무현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계승한 평화 번영 정책과 동북아 시대 구상을 제시하였고, 북핵 해결과 남북 관계의 진전을 병행 추진하였다.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의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공동 선언)’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제시하였다.[이상준 외(2008)] 여기에는 개성 공단 추가 개발, 고속 도로와 철도 개수·보수 등 건설 분야의 참여가 필요한 다수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현재 북한의 건설 산업 기반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을 개수 및 보수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상황은 공기를 중시하고, 건설 자재와 장비가 부족함에 따라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신규 건설과 개수 및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효진 외(2017)] 따라서 남북 개발 협력 단계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특구 사업 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상당한 건설 수요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도 통일 전후로 건설 분야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박용석(2016)] 즉 독일 전체에서 균형 있는 삶의 조건을 창출하겠다는 통일 독일의 최우선 과제에 따라 구동독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택, 교통 서비스 기반 산업 단지 등에 대한 독일 연방 정부 등의 본격적인 투자가 추진되었다. [신민영·최문박(2015)] 독일은 통일 이후 건설 투자 성황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지금까지도 구동독 지역에 대한 건설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2.2. 건설 분야 전문용어 연구의 필요성

북한 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바, 분야별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에 대한 핵심 과제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 개발에 있어 8개 분야²⁾의 제도와 인력 측면의 과제를 정리한 이상준 외(2012)에 따르면 모든 분야에서 용어와 표준을 통일하기 위한 남북 간 공동 연구가 중단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과거에 진행된 남북 협력 사업으로서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인력이 공동으로 투입된 개성 공업 지구, 금강산 지구 등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건설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남북의 건설 용어가 상이함에 따라 정확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도록 하고 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박용석(2008)] 즉 북한에서 시공한 경험이 있는 건설인을 대상으로 북한 건설 시장 진출 시 북한 인력 사용상의 어려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9%가 ‘문화적 차이 및 언어 등 의사소통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이는 ‘북한 기능공의 완성도와 숙련도, 생산성 부재(58.3%)’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향후 북한 개발 수요와 현지의 인력 사정, 남북 협력 사업에서의 교훈 등을 고려할 때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 북한 개발 분야를 국토 조사 및 계획, 산업 입지, 도시 및 농촌 개발, 주택, 교통 인프라, 에너지 및 통신, 수자원 및 방재, 문화 및 관광 등 8개 분야로 구분함.

3.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현황

3.1. 총괄 개요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개별 유관 기관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의 용어를 정리한 경우도 있고, 타 분야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작업한 경우도 있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북측 전문가와의 교류하에 용어를 정리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는 용어의 추출과 상호 비교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용어 통합을 위한 세부 논의까지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건설 분야 전문용어와 관련한 주요 선행 연구와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주요 연구 실적

북한의 건설 분야 용어에 대해서는 초기 사례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남북과학기술용어집》과 통일문제연구협의회³⁾의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그에 해당되는 주요 실적이다.

3.2.1. 《남북과학기술용어집》(2005) 발간

《남북과학기술용어집》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주관하에 2005년 편찬된 물리, 화학, 정보 공학, 수학, 생물, 건축, 금속 분야 전문용어 단순 비교 용어집이다. 용어집 집필 과정에 북측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제3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북측 과학원 함흥 분원 등이 발행한

3) 현재의 '통일정책연구협의회'로서 당시 사전 작성에는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평화문제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어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등 13개 분야별 전문 기관이 참여함.

바 있는 용어 사전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남측 용어와 비교해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어집 내에서 표제어는 한국어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표제어에 해당하는 조선어와 영어 대역을 기술하고 있다.[김철환 외(2015)]

3.2.2.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2007) 발간

통일문제연구협의회는 2006년 북한의 고려전자출판사와 관련 협의서를 체결하고, 2007년에는 북한의 사회과학원과 사업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사전 편찬을 위한 기반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협력은 추진되지 못한 채 남측에서만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고 말았다. 《남북학술·전문용어비교사전》은 기본적으로 남쪽 용어, 북쪽 용어, 관련어, 한자, 원어,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의어 및 출처들을 포함하고 있어 남북한의 용어 뜻과 활용 예를 쉽게 알 수 있다. 남쪽 뜻풀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하되, 없는 경우 참조한 사전에 대한 출처를 밝혔다.[김철환 외(2015)]

3.2.3.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2010) 발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남북한 해운 항만 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 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 기준 등에서 항만 건설 기술 관련 용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남측 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남측의 의미, 북측의 의미 등으로 구성된 용어집을 《남북한 건설기술(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내에 수록하였다.

3.2.4.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2012)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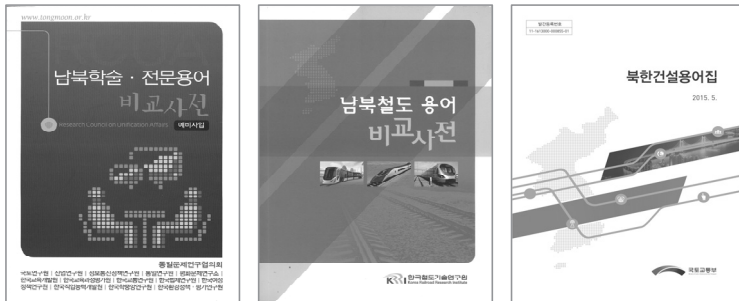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조선말대사전》(1997) 등을 출처로 하여 철도, 물류, 무역 분야에서의 전문용어들에 대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뜻, 북한 용어 뜻을 정리한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을 2012년에 발간하였다.

3.2.5.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2012) 발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남북협력처는 《조선말대사전》(1997)에 있는 전체 용어 중 건설 분야와 관련된 단어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을 발간하였다. 사전의 내용은 북한 용어, 의미, 남한 용어(유의어)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주요 연구 실적



3.2.6. 《북한건설용어집》(2015) 발간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 기술자 또는 학술 연구자들이 북한 문헌 검토 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개 전문 분야, 23개 영역에 대해 총 5,364개 용어를 정리한 《북한건설용어집》을 2015년에 발간하였다. 용어집은 북한 건설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북한 용어, 북한 해설, 남한 용어, 영어 유사어, 분야(영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남한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용어를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는 색인으로 ‘남한 용어 찾아보기’를 수록하였다. 아울러 일상적인 주거 생활과 관련된

남북한 용어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북한의 살림집에 대한 용어, 북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등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3.2.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2017) 발간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남측의 각종 기술 자료를 분석하여 정보통신 분야 핵심 용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북한 용어를 대응하는 방식으로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을 발간하였다. 이 비교집에서는 총 1,476개 남한 용어에 대해 북한 용어, 영어 용어, 남한에서의 용어 정의를 제시하였다.

3.3. 시사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건설 분야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에 비해 다른 모든 작업에 선행되어야 하는 용어와 기준의 정리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 교통 분야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6년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로 구분하여 북한 개발과 관련된 기획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그중 북한 건축 산업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기술 수요를 조사한 연구에서⁴⁾ 남북한의 언어적 차이에 의한 건축 재료·자재, 설계 및 시공상의 용어 차이점을 분석하여 언어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건축관계 용어사전집》 발간이 필요하다고 제의되었으나, 이후 실질적인 연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건설 용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건설 산업 내 산학연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안병욱 외(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대한건축학회,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표 1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총괄 현황

명칭	발간 기관	발간 연도	분야	구성 요소	용어 및 정의 출처	형식
《남북 정보통신 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 정보통신 산업연구원	2017	정보 통신 (1,476개)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영어 용어, 용어 정의 (남한)	《표준국어대사전》 《ITA 정보통신 용어사전》 《온라인백과사전》 《표준품셈》	책자
《북한건설 용어집》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 주택공사(LH) 토지주택 연구원	2015	건설 전반 (5,364개)	북한 용어, 북한 해설, 남한 용어, 영어 유사어, 분야 (영역)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 (2003) 《영조대사전》 (1992) 《건설사전》 (1985) 《조선말대사전》 (1997)	책자
《남북한 건설관련 용어사전》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남북협력처	2012	건설 전반	북한 용어, 의미, 남한 용어 (유의)	《조선말대사전》 (1997)	책자
《남북한 철도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2012	철도, 물류, 무역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뜻, 북한 용어 뜻	《조선말대사전》 (1997) 등	책자
《남북한 건설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2010	항만	남측 용어, 북측 용어, 관련어, 남측 의미, 북측 의미	※ 남북한 해운 항만 분야의 관련 법률, 항만 건설 관련 학술지, 건설 기준 등에서 항만 건설 기술 용어 선정	책자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 연구협의회	2007	건설, 교통, 기계, 전기 등	남쪽 용어, 북쪽 용어, 관련어, 한자, 영어, 남쪽 뜻풀이, 북쪽 뜻풀이, 전문 분야, 동철어, 동의어,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어대사전》 (1991) 《철도자동화상식》 (1990) 《과학기술대사전》 (2005) 《조선말대사전》 (1992) 《조선말사전》 (2004) 《조선교통 운수사》 (1988)	책자 [일부 전산망 (온라인) 서비스]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2005	건축 공학 등 13개 분야	북한 용어, 남한 용어	《조선말대사전》 (1997) 등	책자

4.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사례:

《북한건설용어집》 발간

4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정리한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관련 연구 실적 가운데 2015년 배포된 《북한건설용어집》을 작성했던 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4.1. 용어집 발간 개요

국토교통부는 남한의 건설 기술자 또는 학술 연구자들의 북한 문헌 검토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용어집 작성을 기획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한 학술 연구 용역 ‘북한 건설·제도 및 계획 현황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과업 중 하나로 북한에서 사용하는 건설 분야의 주요 용어를 정리하여 2015년에 공개하였다.

4.2. 용어집 작성 방법과 절차

용어집 작성을 위해 북한 내 건설 용어와 관행에 정통한 중국 연변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연구진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자들은 빈번하게 사용되는 필수 북한 건설 용어를 추출하여, 그 뜻을 정리하고 분야를 구분하는 기초 작업을 진행하였다.⁵⁾ 나아가 용어집 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 건설 전문 분야별 전문가를 유관 학회에서 추천받아 기초 작업을 보완하고 내용상 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5) 본 용어집은 단기간에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시간상의 제약과 건설에 포함된 여러 세부 분야를 포괄해야 한다는 내용상의 제약을 지닌 상태에서 제작됨. 북측 건설 전문가가 용어집 제작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차선책으로 북한에서 건설 업무를 담당해 본 국내외 전문가의 참여를 모색함. 그 결과 남한, 북한, 국외 건설 분야를 모두 참여한 경력에 있는 전문가를 연구진에 포함시켜 작업을 진행함.

4.2.1. 용어의 추출

정리 대상 건설 용어는 당초 용어집 제작 목적을 반영하여 북한 현지 건설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북한 건설 용어 데이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신 정보·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우선 국외 전문가가 1차로 용어(안)를 추출하고, 국내 연구진은 아래 네 가지 방향에서 이를 보완하였다.

- ① 국내 시방서 등 기술 자료, 건축 세움터와 기타 관련 법 제도에서 도출된 법령 용어 등을 추가하였다.
- ② 북한의 주요 건설·개발 관련 법령 14개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와 남한의 관계법에 나오는 용어를 살펴보고 법령상의 단어를 비교 가능하도록 처리하였다.
- ③ 국내에서 입수 가능한 북한의 학술 및 기술 자료를 보고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 추가하였다.⁶⁾
- ④ 선행 건설 분야 남북 전문용어 연구 실적 자료 중에서 누락된 것을 추가하였다.

4.2.2. 용어의 정리

학술 연구자와 업계 전문가들이 남북한 건설 용어 사용 예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 서로 상대측 자료를 검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북한 건설 용어, 용어 해설, 해당 분야를 우선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남한 건설 용어와 영문 용어를 병기하였다. 북한 용어와 해설은 아래의 건설 전문 문헌을 출처로 하여 정리하였다.⁷⁾

6) 주로 《광명백과사전》을 활용함.[《광명백과사전 17》(화학공업·경공업·건설·운수·제신)(2011)]

7) 당초 계획에서는 용어에 대한 남북 사전의 해설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남북 용어 정의를 제공할 수 있는 건설 용어 사전에 대한 협의가 여의치 않아 이번 작업에서는 제외됨.

- ① 《영어-중국어-조선어 과학기술용어대사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2003.
- ② 《영조대사전》, 리문재 외 11인 편, 외국문도서출판사, 1992.
- ③ 《건설사전》 1, 2, 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 ④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97.

4.2.3. 내용의 검증

용어집(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는 건설 분야 유관 학회의 협조를 받아 용어집 구성과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즉 향후 본 용어집에 대한 후속 작업에서의 연속성을 도모하면서, 예상되는 남북 공동 작업에 있어서는 유관 학회와 협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대한건축학회와 대한토목학회의 직간접적인 협력하에 검증을 진행하였다.

대한건축학회에서는 설계·역사·조경·도시와 교통, 시공·재료·관리·유지 관리, 설비 분야에 대한 전문가 3인을, 대한토목학회에서는 토목 전반에 대한 용어 검토가 가능한 전문가 3인을 추천하였다. 학회에서 추천 받은 분야별 전문가들에게는 해당 분야 용어와 해설을 배포한 후 아래 기준에 따라 감수하도록 안내하였다.

- ① 북한 용어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 영문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북한 용어와 해설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와 영문 용어의 적정성 검토
 - 누락된 남한 용어와 영문 용어 추가
- ② 분야별 주요 용어 누락 여부 확인
 - 담당 분야에서 필수적인 단어가 누락된 경우, 추가해야 하는 용어로 제안

4.3. 전문 분야 구분

《북한건설용어집》에는 건축 분야(설계, 구조, 시공, 관리)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토목, 도시·교통, 조경, 기계, 전기·전자 등의 전문 분야에 포함된 용어 5,364개가 수록되었다. 건설 분야의 전체 전문 분야 대비 금번 용어집 용어들의 해당 전문 분야를 표기하면 아래 표와 같다. 건설 분야에 포함되는 총 10개 전문 분야, 47개 영역 중 7개 전문 분야, 23개 영역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용어집에 포함되었다.⁸⁾

표 2 용어집 작성 해당 전문 분야

전문 분야	영역	선택	영역	선택
기계(5)	1) 공조 냉동 및 설비	△	2) 건설 기계	△
	3) 용접	△	4) 승강기	△
	5) 일반 기계			
전기·전자(3)	1) 철도 신호		2) 건축 전기 설비	△
	3) 산업 계측 제어			
토목(12)	1) 토질·지질	△	2) 토목 구조	△
	3) 항만 및 해안	△	4) 도로 및 공항	△
	5) 철도·삭도	△	6) 수자원 개발	
	7) 상하수도	△	8) 농어업·토목	
	9) 토목 시공	△	10) 토목 품질 관리	
	11) 측량 및 지형 공간 정보	△	12) 지적	
건축(6)	1) 건축 구조	△	2) 건축 기계 설비	△
	3) 건축 시공	○	4) 실내 건축	
	5) 건축 품질 관리	△	6) 건축 계획·설계	○
광업(2)	1) 화약류 관리		2) 광산 보안	
도시·교통(2)	1) 도시 계획	△	2) 교통	△
조경(2)	1) 조경 계획	△	2) 조경 시공 관리	△
안전 관리(4)	1) 건설 안전	△	2) 소방	
	3) 가스		4) 비파괴 검사	

8) 전문 분야와 영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 분야)를 재편집함.

전문 분야	영역	선택	영역	선택
환경(7)	1) 대기 관리		2) 수질 관리	
	3) 소음 진동		4) 폐기물 처리	
	5) 자연환경		6) 토양 환경	
	7) 해양			
건설 지원(4)	1) 건설 금융·재무		2) 건설 기획	
	3) 건설 마케팅		4) 건설 정보 처리	

전체 용어를 이러한 전문 분야와 영역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여러 전문 분야에서 공통되는 분야의 용어가 50% 가까운 비율(46.0%, 2,465개)을 차지하고, 건축 분야(26.5%, 1,421개)와 토목 분야(13.9%, 743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용어집 정리 용어 개수(전문 분야와 영역별)

전문 분야	영역	개수	분야 비율(%)	영역 비율(%)
공통	일반	201	3.7	8.2
	설계	96	1.8	3.9
	구조	647	12.1	26.2
	재료	610	11.4	24.7
	시공	685	12.8	27.8
	건설 기계	72	1.3	2.9
	건설 관리 및 지원	109	2.0	4.4
	역사	45	0.8	1.8
	소계	2,465	46.0%	100.0%
건축	건축 일반	139	2.6	9.8
	건축 계획 및 설계	356	6.6	25.1
	건축 재료	255	4.8	17.9
	건축 시공	287	5.4	20.2
	건축 설비	375	7.0	26.4
	유지 관리	9	0.2	0.6
	소계	1,421	26.5%	100.0%

전문 분야	영역	개수	분야 비율(%)	영역 비율(%)
토목	토목 일반	99	1.8	13.3
	토목 재료	5	0.1	0.7
	토목 시공	149	2.8	20.1
	토질 및 지질	125	2.3	16.8
	항만 및 해안	72	1.3	9.7
	도로 및 공항	47	0.9	6.3
	교량	48	0.9	6.5
	철도 및 석도	21	0.4	2.8
	수자원 개발	79	1.5	10.6
	상하수도	61	1.1	8.2
	농어업·토목	7	0.1	0.9
	측량·지형 정보·지적	30	0.6	4.0
	소계	743	13.9%	100.0%
도시 및 교통	도시 계획	72	1.3	81.8
	교통	16	0.3	18.2
	소계	88	1.6%	100.0%
조경	조경	30	0.6	—
기계	기계	8	0.1	—
전기	전기	24	0.4	—
기타	기타	585	10.9	—
총계		5,364	100.0%	—

4.4. 용어집의 구성과 정리 형식

용어집 제작 과정에서는 기초 자료를 엠에스 엑셀(MS Excel) 형식으로 작성하여, 추후 필요에 따라 한국어, 영어, 전문 분야 등으로 용이하게 재정렬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또한 기초 자료에 관련 문헌의 출처를 명기하여 개정에 대비하도록 조치하였다.

4.4.1. 용어집의 전체 구성

《북한건설용어집》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전체 용어에 대한 해설은 3장에 포함시키고, 생활 용어, 분야별 용어, 법령 용어 등 주요 용어를 2장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1장. 들어가며	2장. 주요 북한건설용어	3장. 북한건설용어집
1. 발간사	1. 북한건설용어의 특징	1. 용어집
2. 일러두기(유의사항)	2. 주거환경 용어 상호비교	2. 남한용어 찾아보기
	3. 분야별 주요 용어	
	4.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	

2장에서는 우선 3장 용어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말 사용 빈도가 높고 다양한 외국어의 영향을 받은 점이 특징인 북한 건설 용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거 환경 용어의 경우 건설 전문가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로 판단되는 주거 생활 관련 남북 용어를 비교·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공동 주택 평면과 단지 내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일상적인 건설 관련 용어를 비교하고, 북한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살림집’ 관련 용어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분야별 주요 용어의 경우 남북 용어 비교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용어들을 공통 분야, 토목 분야, 건축 분야, 기타 분야 등 4개 전문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 관련 법령 용어 해설의 경우 북한 법령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총 14개 북한 건설·개발 법령에 포함된 북한 건설 용어를 나열하였다. 법령 해석과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시 일반 용어도 추가하였으며, 3장의 용어집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하였다.

3장에 포함된 북한 건설 용어는 북한의 자음과 모음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우리말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남한 용어에 상응하는 북한 용어를

4.4.2. 용어 정리 양식

《북한건설용어집》 3장의 용어집은 북한과 남한의 기술 용어를 병기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양식을 작성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 용어에 대한 해설을 우선 기술하고, 해당 용어에 상응하는 남한 용어, 영문 용어순으로 정리하였다.

북한 용어 중 유사어는 ‘**유**’ 다음에 표기하고, 남한 용어는 ‘**남**’ 뒤에, 영문 용어는 ‘**영**’ 뒤에 적었으며, 용어 해설에서 유사어가 용어집 내에 있는 경우 ‘**해**’로 표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북한 용어는 남한의 자음 순서에 따라 용어를 배열하였으며,⁹⁾ 북한 용어 해설은 북한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맞춤법을 준용하여 수록함에 따라 띄어쓰기, 사이시옷 사용, 두음 법칙 적용 등 남한과 다르게 쓰이는 북한 말의 특징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술하여 용어집 활용에 참고하도록 하였다.¹⁰⁾

표 4 용어집 양식과 정리 사례

북한용어
북한용어 해설 유 유의어 또는 해 관련어
남 남한용어
영 영문용어

가시대
부엌이나 조리칸에서 그릇이나 식료품을 물에 씻는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만든 대
남 개수대, 싱크대
영 sink

9) 북한 말의 자음 배열 순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ㅍ, ㅎ, ㅌ, ㄷ, ㅃ, ㅅ, ㅆ]가 아닌 남한의 자음 배열 순서[ㄱ, (ㄱ), ㄴ, ㄷ, (ㄷ), ㄹ, ㅁ, ㅂ, (ㅂ), ㅅ, (ㅅ), ㅇ, ㅈ, (ㅈ), ㅊ, ㅋ, ㆁ, ㅍ, ㅎ]를 따랐음.

10) 그 외 ‘~되여 : ~ 되어’, ‘결수 : 계수’, ‘잇손 : 이음’, ‘짐 : 하중’, ‘~우 : ~위 (앞에 띄어쓰기 없음) 등 빈번하게 반복되는 부분도 따로 안내함.

4.5.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과 주거 전문용어

4.5.1. 북한 건설 분야 용어의 특징

북한에서는 ‘주체적인 우리말과 글의 발전 정책’을 통해 용어들을 순수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서 기술 용어들이 많은 변화를 겪음에 따라 남한 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수우리말의 사용 빈도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 후반 들어 오랫동안 써 오면서 굳어진 외래어나 한자어는 본래 대로 사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순수 우리말과 외래어, 한자어를 어느 정도 같이 쓰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도’, ‘내구성’, ‘환기’, ‘트라스’, ‘방음벽’, ‘내한성’ 등 남한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건능굴길’, ‘오래 견딜성’, ‘공기같이’, ‘살뜰’, ‘소리막이벽’, ‘추위견딜성’ 등 우리말로 사용되고 있다.

표 5 북한 용어의 우리말 사용 예

북한 용어	북한 용어 해설	남한 용어
건능굴길	지하로 난 건능길	지하도
건물오래 견딜성	건물이 물리적·마모로부터 오래 견디는 특성으로 기본힘받이 구조물들의 견딜능력에 따라 평가됨	건물 내구성
공기같이	방안의 흐린 공기를 빼고 맑은 공기를 갈아넣는 일	환기
살뜰	직선막대들로 되어있으며 모든 마디들에서 돌이로 연결된 막대계 ^{트라스} 트라스	트라스
소리막이벽	소리의 전파를 막는 벽	방음벽
추위견딜성	0℃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려는 재료의 성질	내한성

또한 북한 기술 용어에는 일본어와 러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용어가 다수 있다. 특히 해방과 한국 전쟁 이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복구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용어가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표현들이 러시아의

발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호용 외(1999)]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뜨락또르’, ‘레루’, ‘마르까’, ‘썩찌야’ 등 외국어에 근원을 둔 일부 용어들이 전문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표 6 외국어 영향을 받은 북한 용어 예

북한 용어	북한 용어 해설	남한 용어
고마르까세멘트 (高marka cement)	마르까(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 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으로 평균 압축세기)가 높은 질 좋은 세멘트	고강도 시멘트
노메르	차레를 나타내는 호수(號數) ᄇᆞᆫ 번호	번호
대형뜨락또르	50HP이상의 출력을 가진 트랙토르	대형 트랙터
레루	철도차량의 바퀴가 타고 굴러가는 궤도의 기본구성요소로 철길에 가는 일정한 모양으로 된 긴 강쇠 ᄇᆞᆫ 철길	레일, 철도 선로
마르까	석재, 몰탈, 콘크리트, 강철과 같은 짐을 받는 건설자재의 세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준	기준 세기
찌야식	한 개의 공동계를 중심으로 한층에 몇 개 세대씩 살림집단위를 연결하여 짓는 건설방식	홀형

4.5.2. 주거 환경 용어 상호 비교

주거 생활에서 익숙한 용어들에 대해 남북한 용어를 상호 비교 한다는 의미에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내·외부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검토하였다. 아래 표는 이러한 용어를 정리한 것이고, 그림은 일반적인 아파트 평면에 이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 7 아파트 중심의 주거 생활 관련 건설 용어 비교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아파트	아빠트	난간	계단란간
주택	살림집	옥내 소화전	옥내소화전
거실	공동살림방	승강기	승강기
응접실	손님맞이방, 접대실	초인종, 벨	전기종
침실	살림방	욕조	목욕통
식당	식사실	세면대	세면대
주방, 부엌	부엌(방)	변기	변기
화장실	위생실	화장지	위생종이
발코니	발코니	스위치	전기여닫개
베란다	내임대, 내민층대	커튼	창가림막, 주름막, 카텐
계단	계단, 층대, 층층대, 디대	창	창바라지
썩크대, 개수대	가시대	텔레비전	텔레비존
가스레인지	가스곤로	형광등	반디빛등
프라이팬	볶음판, 지짐판	옷걸이	옷걸개
냉장고	랭동기, 랭동고	헤어드라이어	머리건조선풍기
전기 믹서	전기분쇄기	세탁기	세탁기
에어컨	랭풍기	진공청소기	흡진기
전기밥솥	전기밥가마	주차장	차마당
가스오븐레인지	지짐곤로	중앙난방	구획난방
층고	층높이, 층고	비상계단	비상계단
창고	창고	비상구	비상구
통풍	바람갈이	비상등	비상등
환기	환기, 공기갈이	초등학교	인민학교
가게	가가	탁아소	애기궁전
가로수	거리나무	피뢰침	벼락촉
건널목, 횡단보도	건늬길	청결차	쓰레기차
산책로	유보도, 거닐길	서랍	빠람
생활 필수품	인민소모품	세탁소	빨래집
상들리에	무리등, 장식등	에스컬레이터	계단승강기, 자동계단

그림 4 주거 공간 내 남북 용어 비교



4.6. 건설 분야 남북 용어의 비교 분석

4.6.1. 비교 분석의 기준

남북 건설 분야 언어의 통합을 위해서는 단순한 용어의 비교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되는 용어와 작업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5,364개의 전문용어에 대해 남북의 언어가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남북 간 전문용어를 비교·분석하는 유형은 신중진 외(2016)을 참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8 전문용어 유형 구분

유형	구분	설명
등가형	AA	남북이 동일 개념, 동일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Aa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되 외래어 표기법이나 맞춤법, 기타 어문 규범의 차이로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 용어 대응 관계
준등가형	AB	1 전문용어가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어 내 또는 언어 간 동의어로 표현된 경우
		2 전문용어의 개념이 서로 다르게 명칭화되어서 각 용어의 구성 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
비대응형	AO	남북 간 대응 전문용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6.2. 1차 분석

용어집 내의 단어들에 대해 우선 파악하기가 용이한 등가형 단어(AA형)와 비대응형 단어(AO형)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용어 중 7.9%에 해당하는 422개의 북한 용어는 그에 대응하는 남한 용어가 정리되지 않았다.

표 9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유형

분야	영역	전체 개수	AO형		AA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1)	비율(2)
공통	일반	201	25	12.4%	103	51.2%	58.5%
	설계	96	8	8.3%	45	46.9%	51.1%
	구조	647	46	7.1%	299	46.2%	49.8%
	재료	610	32	5.2%	260	42.6%	45.0%
	시공	685	56	8.2%	295	43.1%	46.9%
	건설 기계	72	6	8.3%	30	41.7%	45.5%
	건설 관리 및 지원	109	15	13.8%	68	62.4%	72.3%
	역사	45	6	13.3%	23	51.1%	59.0%
	소계	2,465	194	7.9%	1,123	45.6%	49.4%
건축	건축 일반	139	11	7.9%	43	30.9%	33.6%
	건축 계획 및 설계	356	26	7.3%	154	43.3%	46.7%
	건축 재료	255	29	11.4%	118	46.3%	52.2%
	건축 시공	287	28	9.8%	124	43.2%	47.9%
	건축 설비	375	12	3.2%	197	52.5%	54.3%
	유지 관리	9	0	0.0%	8	88.9%	88.9%
	소계	1,421	106	7.5%	644	45.3%	49.0%
토목	토목 일반	99	9	9.1%	44	44.4%	48.9%
	토목 재료	5	0	0.0%	3	60.0%	60.0%
	토목 시공	149	12	8.1%	76	51.0%	55.5%
	토질 및 지질	125	4	3.2%	74	59.2%	61.2%
	항만 및 해안	72	4	5.6%	33	45.8%	48.5%
	도로 및 공항	47	1	2.1%	26	55.3%	56.5%
	교량	48	4	8.3%	18	37.5%	40.9%
	철도 및 석도	21	2	9.5%	7	33.3%	36.8%
	수자원 개발	79	5	6.3%	32	40.5%	43.2%

분야	영역	전체 개수	AO형		AA형		
			개수	비율	개수	비율(1)	비율(2)
	상하수도	61	6	9.8%	34	55.7%	61.8%
	농어업·토목	7	0	0.0%	5	71.4%	71.4%
	측량/지형 정보/지적	30	1	3.3%	22	73.3%	75.9%
	소계	743	48	6.5%	374	50.3%	53.8%
도시 및 교통	도시 계획	72	6	8.3%	40	55.6%	60.6%
	교통	16	1	6.3%	7	43.8%	46.7%
	소계	88	7	8.0%	47	53.4%	58.0%
조경	조경	30	1	3.3%	19	63.3%	65.5%
기계	기계	8	0	0.0%	1	12.5%	12.5%
전기	전기	24	1	4.2%	15	62.5%	65.2%
기타	기타	585	65	11.1%	326	55.7%	62.7%
총계		5,364	422	7.9%	2,549	47.5%	51.6%

또한 등가형 중에서 AA형의 정의에 부합하는 용어는 전체의 51.6%인 2,549개였다. 그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50% 내외의 용어는 북한 용어와 남한 용어의 형태와 의미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6.3. 2차 분석

1차 분석 후에는 언어 통합에 있어 핵심이 되는 비등가형 용어에 대한 분석이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100개 이상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영역 가운데, 등가형 중 AA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공통 분야의 '건설 관리 및 지원' 영역에 대한 추가 분류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북 간에 사용하는 용어가 같은 경우(AA형)가 62.4%였고, 여기에 맞춤법이나 어문 규범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Aa형[기본 로임(북)↔기본 노임(남), 설계 예산 리운(북)↔설 계 예산 이운(남)]을 포함하면 등가형이 65%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동일 개념을 지칭하되 그 용어의 형태가 다른 준등가형의 경우 동일한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것이 언어 내 또는 언어 간

동의어로 표현된 경우(AB-1형)가 8.3%, 각 용어의 구성 요소들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AB-2형)가 13.8%를 차지하였다. 대응어가 없는 용어(AO형)는 총 15개(13.8%)로 나타났다. ‘AB-2형’과 ‘AO형’에 해당되는 30개 단어의 경우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표 10 ‘건설 관리 및 지원’ 영역의 유형 구분

유형	구분	개수	비율
등가형	AA	68	62.4%
	Aa	2	1.8%
준등가형	AB	1	8.3%
		2	13.8%
비대응형	AO	15	13.8%
총계		109	100.0%

준등가형 중 언어 간 동의어로 지칭된 동일 개념의 남북 전문용어(AB-1형)에 해당하는 사례에는 아래 표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 또한 서로 대응하는 남북 용어들이 전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AB-2형)인 15개 용어에 대해서는 권재일(2015)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① 남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② 북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③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또는 ④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복수 어휘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1 준등가형 용어 사례(일부)

북한 용어	남한 용어	북한 용어	남한 용어
간접 로력	간접 노무	건설주	건축주
건설대	건설사	기준 단위	표준 단위
건설액	건설비	대휴 로력	대휴 노동
건설자, 시공주	시공자	직영 건설	직영 공사

4.7. 《북한건설용어집》의 활용

상호 이질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남북 협력을 진일보하게 하고 건설 분야 발전을 촉진하는 기초가 된다. 상호 교류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상이한 용어의 사용이 줄어들면서 합의된 전문용어를 활용하는 방향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건설용어집》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확대·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용어집은 북한의 건설 관련 문헌에 대한 이해를 지원하고, 상호 공동 작업에 있어 효율적 의사소통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 건설 분야 학자와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연구에서 정리한 작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용어집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자 외에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방법을 검토하도록 한다.

그림 5 결과물의 온라인 서비스 사례



5. 향후 과제

건설 과정에는 시설물 유형과 사업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제도가 융합되어 적용된다. 남북 건설 분야 전문용어 관련 연구에는 이러한 건설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남북 간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과 확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5.1. 건설 분야 전문용어 통합을 위한 과제

5.1.1. 전문 분야 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건설 분야에는 건축, 토목, 도시 계획, 철도, 도로, 수자원, 국토 정보화, 행정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가 존재한다. 따라서 용어 통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정부 주도하에 건설 분야 전체 학회와 협회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의 목표 아래 총괄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한 후 하위 전문 분야별로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문 분야별 작업이 완료된 후 공통된 용어를 정의하고, 중복되거나 특정 용어의 의미가 여러 개인 용어는 추가로 편집하도록 한다.

5.1.2. 심화 언어 통합 작업 진행

현재까지 건설 분야 전문용어 정리 작업은 단순히 관련된 용어를 나열하고 남북의 용어를 비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향후 보다 심화된 언어 통합 과정을 거쳐 누락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용어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건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북한 자료의 입수도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측 자료에만 의존하여 용어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북한의 시방서나 절차서와

같은 건설 기준, 기술제도 관련 자료를 통해 필요한 용어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추출하여 비교하는 작업을 기존 절차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5.1.3. 일반 언어 통합 기준의 준용

남북의 언어 환경은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신중진 외(2016)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용어는 남북의 일반 언어 통합 방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전문용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기법, 외래어에 대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며, 분야별 전문용어 통합안보다 상위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 언어 통합을 다루는 기관에서 전문용어 작업을 위한 공통 가이드를 배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5.2. 통합 언어 확산을 위한 과제

5.2.1. 건설 분야 남북 교류 기회 확대

이찬규 외(2014)와 이대성(2015)에서 제시된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에서 나온 바와 같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 건설 분야 언어 통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된 뒤에도 서로 간에 충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교류는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언어 차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설 분야 남북 학자 간의 다양한 공동 연구 수행, 보고서 작성, 논문 발표 등을 통한 학술적 교류 기회와 기술자 사이의 실용적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5.2.2. 교육을 통한 통합 용어의 확산 도모

건설 관련 업무와 작업은 다양한 장소에서 수행되며, 남북 기술자와 노무자가 함께 일하는 현장과 사무실이라면 전문용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용어까지 복합되어 안내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 내 건설 현장 투입 시 전문용어를 포함한 의사소통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전 교육은 북한 노무자가 남한으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단일화한 전문용어를 고등 교육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남북의 대학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육성되는 건설 인력들 사이에 의사소통이나 자료 작성과 이해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¹¹⁾

11) 북한의 건설 관련 교육은 5~5.5년 과정을 수료한 후 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1년간 현장 체험 후 설계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건재대학, 4년 과정을 수료한 후 현장 기사 자격을 취득하는 건설단과대학, 3년 과정을 수료한 후 고급 기능공인 준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고등건설전문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며,[김효진 외(2017)] 이들 교육과정과 교재에 통합 용어를 반영하도록 함.

참고문헌

- 김두환 외(2015), 《북한건설용어집(북한 건설·개발제도 및 계획현황 연구)》, 국토교통부·LH 토지주택연구원.
- 김철환 외(2015), 《2014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남북 ICT 표준화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호용 외(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 정책 연구 사업》, 과학기술부·한국전기연구소.
- 김효진 외(2017), 《남북개발협력 대비 북한 건설인프라 상세현황 분석 및 LH의 참여전략 도출》, LH 토지주택연구원.
-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15), 《남·북한 건설협력사업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박용석(2016),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박용석 외(2008), 《북한 SOC 시장 진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대한건설협회.
- 신민영과 최문박(2015), 《독일 통일로 본 통일 경제의 주요 이슈》, LG경제연구원.
- 신중진 외(2016), 《2016년 남북 전문용어 구축》, 국립국어원.
- 안병욱 외(2016), 《통일대비 북한 건축산업 인프라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이대성(2015),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 사업의 현황과 과제》(광복 70주년 기념 겨레말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원.
- 이상준 외(2008),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최기선 외(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의 정비》, 국립국어원.
- 통일문제연구협의회(2007), 《남북학술·전문용어 비교사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 표창균 외(2017), 《남북 정보통신공사 용어 비교집》,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05), 《남북 과학기술 용어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한국전기연구소(1999), 《전력분야 남북한 용어비교 연구조사》, 과학기술부.
- 나희승 외(2012), 《남북한 철도용어/남북물류용어 비교사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6), 《한영대조 토지개발용어사전》,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2012), 《남북한 건설 관련 용어사전》.
- 국토해양부 편(2010), 《남북한 건설기술 (항만분야) 표준화 방안》, 국토해양부.

